산타 할머니의 재판

등장인물: 판사, 검사, 변호사, 산타 할머니, 법원 서기, 루돌프
배경: 재판정

서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금부터 산타 할머니의 불법 주거침입 및 허위 사실 유포, 협박, 임금체불에 대한 모의법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난다. 판사가 천천히 입장한다.)

서기: (판사가 자리에 앉으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판사: 사건번호 2023가단579, 피고인 산타 할머니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를 바라보며) 먼저 검찰 측, 기소 요지를 밝혀주십시오.

검사: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산타 할머니는 본명과 나이 미상의 북극권 거주자로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크리스마스 캐롤송 '울면 안 돼'로 허위 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였기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루돌프와 다수의 요정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자리에 앉는다)

판사: (변호사를 바라보며) 네, 기소 요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변호인 측의 변론 요지를 듣겠습니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산타 할머니는 여러 명의 산타와 함께 매년 12월 24일, 25일을 전후하여 양말을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은 전세계 어린이에게 선물을 무상으로 나눠주었고, <울면 안돼>라는 노래는 산타 할머니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루돌프와 요정은 노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선물 포장과 전달 등의 활동을 하여 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자리에 앉는다.)

판사: 변론 요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먼저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앞으로 가서) 피고인, 피고인은 어디에 거주하지요?

산타 할머니: (검사를 바라보며) 저는 주로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에 거주하다가 크리스마스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가 가까워지면 북극 근처에 있는 산타클로스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검사: 피고가 말하는 산타클로스 마을은 핀란드 라플란드주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산타 할머니: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 마을은 핀란드 라플란드주의 주도인 로바니에니에서 북쪽으로 8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검사: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클로스 마을에서 출발한 수백 명의 산타가 전세계로 흩어져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산타 할머니: 맞습니다. 나눠줘야 할 선물이 많아 산타가 여럿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을 맡아서 한국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검사: 좋습니다. 그럼 산타는 그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주고 있지요?

산타 할머니: 매년 선물을 받을 어린이 명단과 주소가 나옵니다. 그 명단과 주소를 보고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서 선물을 살짝 놓고 옵니다.

검사: (몸을 돌려 판사를 바라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산타 할머니는 산타클로스 마을에서 가져온 선물을 어린이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나눠준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일부 주택은 굴뚝을 타고 내려갔고, 요즈음 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 문을 열거나 현관문을 몰래 열고 들어가는 등 불법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할머니를 바라보며) 피고인, 피고인은 집 주인의 동의를 받고 거주지에 들어가셨나요?

산타 할머니: 아니,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에게 선물을 몰래 주고 나오는 것이 산타의 임무라 동의를 따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도둑도 아니고….

검사: (몸을 돌려 판사를 바라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주지에 침입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영장 없이 출입을 하는 것은 불법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변호사를 바라보며) 다음으로 변호인, 반대 심문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며)네, 하겠습니다.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산타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산타 할머니: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타 교육을 받으면서 듣기로는 서기 1100년대부터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하니 약 9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네, 그렇군요. 지난 크리스마스에 우리 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양말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산타가 안 들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살짝 갖다 놓았습니다. 혹시 어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계시나요?

산타 할머니: 우선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사는 어린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어린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 바른 말을 사용하는 어린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어린이 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변호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밤에 선물을 주러 가면서 그 집이 산타의 출입을 동의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산타 할머니: 선물을 받을 어린이 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거나 양말을 걸어놓은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집은 산타가 출입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 집도 많은데, 다행히 산타는 출입 전용 디지털 카드가 있어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트리나 양말이 없는 집은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변호사: 그렇군요. 산타가 아무 집이나 열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군요? 일종의 동의가 있어야 집 출입이 되는 것, 맞습니까?

산타 할머니: 그렇습니다. 선물 리스트에 이름이 있어도 크리스마스 트리나 양말이 없으면 그 어린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검사: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의 있습니다, 재판장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놓거나 양말을 걸어놓았다고 산타가 마음대로 집을 출입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양말을 마치 동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는다.)

판사: 인정합니다. 변호인 측은 조금 더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판사를 바라보고)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밤부터 크리스마스 새벽까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타의 방문은 불법 침입으로 생각하지 않는 불문율이자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강도나 절도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산타가 방문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산타의 방문은 주거침입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검찰 측, 추가 심문을 하겠습니까?

검사: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재판장님. (산타 할머니 앞으로 가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몇 시 정도부터 언제까지 방문하셨지요?

산타 할머니: 저는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인 크리스마스 날 오전 6시까지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검사: 좋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선물을 전달했다는 시간은 해가 없는 야간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산타 할머니: 네, 야간에 방문한 것은 인정합니다. 주거침입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선물 전달을 위해 야간에 방문한 것은 인정합니다.

검사: (판사를 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냥 주거침입도 심각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더군다나 해가 진 이후, 심야에 거주지를 무단 침입했으므로 야간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을 주장합니다. 어두운 밤에는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끼기 쉽고, 절도나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고인 산타 할머니의 행동은 그 의도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야간 주거침입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는다.)

판사: 변호인 측, 반대 심문 하겠습니까?

변호인: 네, 재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며) 피고인, 피고인이 낮에 선물을 주지 않고 굳이 밤에 집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타 할머니: 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모두가 잠든 밤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나 양말 안에 선물이 있으면 너무 기쁘겠지요? 이것이 9백년 이상 산타들이 지켜온 전통이었습니다.

변호인: (판사를 향해 몸을 돌리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산타할머니와 산타할아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버지는 전세계 어린이가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집을 찾아와서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선물을 환한 대낮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놓고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약 산타클로스와 산타 할머니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지 않을 경우 실망하여 크게 울거나 화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자리에 들면서 산타가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나 양말 안에 선물을 놓아주길 기원합니다. 산타할머니의 행동은 불법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동의 또는 사실상의 허락을 받아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주거침입 혐의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의 자리에 들어가 앉는다.)

판사: 양측 심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심문을 하겠습니다. (검사를 바라보며) 검찰 측, 심문해 주십시오.

검사: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심문하려면 먼저 시중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한 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노래를 재판정에서 틀어도 괜찮겠습니까?

판사: 좋습니다. 어떤 노래지요?

검사: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장비로 크리스마스 캐롤 '울면 안 돼'를 재생한다. 어느 정도 가사가 나오고 나서 음악을 끈다. 피고인을 바라보며) 피고인, 피고인도 이 노래를 들어보셨겠지요?

산타 할머니: 물론입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아닙니까.

검사: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울면 안 돼'라고 크리스마스에 큰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피고인, 이 노래에서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고 하고 있죠?

산타 할머니: 네,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본 검찰은 이 노래가 산타 측의 허위 사실 유포와 위협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산타는 실제로는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노래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주겠다고 위협하여 아이들의 울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로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인데 슬프거나 화가 나도 울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어린이는 거의 매년 울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현상입니다. 이에 본 검찰은 산타 측이 어린이에게 '선물 받고 싶으면 울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변호인, 반대 심문 하십시오.

변호사: 네, 재판장님. 피고인, 피고인은 '울면 안 돼'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의 작사, 작곡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산타 할머니: 아니요,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변호사: 네, 그렇군요. 지금 들으셨다시피, 피고인 산타 할머니는 '울면 안 돼'라는 곡의 가사를 쓰거나 가락을 작곡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타클로스는 이 곡의 작사, 작곡과 관련이 있습니까?

산타 할머니: 아뇨, 제가 알기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곡의 작사가는 미국의 헤븐 질레스피라는 사람이고, 작곡은 '플레그쿠츠'라는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판사를 바라보며) 맞습니다. 이 곡은 원래 '산타클로스 이즈 커밍 투 다운'이라는 제목으로, 1934년 11월에 라디오에서 처음 불려 지금 약 90년이 된 곡입니다. 이 곡은 한국어 노래 '울면 안 돼'로 번안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확인하셨다시피, '울면 안 돼'라는 노래는 피고인인 산타 할머니, 그리고 산타클로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중적인 캐롤송입니다. 이 곡의 가사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허위 사실 유포와 협박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 측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석으로 가서 앉는다.)

판사: 알겠습니다. 검찰 측, 추가 심문할 것이 있습니까?

검사: 네,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타 할머니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피고인은 '울면 안 돼'라는 노래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지요?

산타할머니: 물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검사: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라는 이 노래의 가사도 잘 알고 계셨겠군요?

산타 할머니: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검사: 피고인이 이 노래를 잘 알고 있다면 산타클로스도 이 노래 가사는 잘 알고 있겠죠?

산타 할머니: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요?

검사: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산타클로스가 이 노래 가사가 문제가 있다고 작사가나 음반 회사에 시정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산타 할머니: 아뇨,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노래와 관련해 작사가나 음반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그런가요? 그렇다면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라는 가사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산타 할머니: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그 가사에 문제의식이 없다는 건 결국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타 할머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 (판사쪽으로 몸을 돌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과 산타클로스는 '울면 안 돼'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어린이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사를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 유포와 위협에 동참한 것이라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노래가 나온지 90년이 되어 이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유포와 위협죄를 물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는다.)

판사: 그럼 다음 쟁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 측은 임금체불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한 부분에 대해 심문하기 바랍니다.

검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피고인, 피고인은 혼자서 선물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나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나요?

산타 할머니: 산타들은 매우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을 포장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타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당연히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물 포장은 요정들이 해주었고, 선물을 전달할 때에는 순록인 루돌프의 도움을 받았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습니다.

검사: 그렇군요. 그럼 요정과 일을 한 건 언제부터이죠?

산타 할머니: 요정이 산타클로스와 함께 선물을 준비한 건 900년 정도 되었고, 저랑 같이 일을 한 것은 2019년 12월부터였습니다. 그림책 《산타 할머니》(봄개울)가 2019년 12월에 나왔거든요.

검사: 그렇군요. 그럼 산타클로스, 그리고 피고인과 루돌프가 일을 한 것은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타 할머니: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일을 한 것은 1939년부터였습니다.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책을 통해 산타클로스에게 루돌프를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일을 한 것은 역시 2019년 12월부터입니다. 제가 산타할머니로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2019년 12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몇 년 동안 요정과 루돌프에게 임금을 지급했나요?

산타 할머니: 요정과 루돌프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의 대부분은 각자 일하다가 12월 중순에 모여서 선물을 포장하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선물 배달을 했습니다.

검사: 피고인, 피고인은 지금 요정과 루돌프가 노동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산타 할머니: 그렇습니다. 저 역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들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산타 할머니: 그렇습니다. 요정과 루돌프는 겨울철에만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산타클로스가 활동하는 시기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산타클로스는 900여년 동안 요정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루돌프에게는 1939년부터 한 번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역시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 번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요정과 루돌프가 과연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임금체불에 고통받는 노동자인지가 임금체불 혐의를 밝히는 관건입니다. 따라서, 검찰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루돌프 씨를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재판장: 좋습니다. 루돌프 씨는 법정에 나와 계신가요?

루돌프: (큰 목소리로) 네!

재판장: 루돌프 씨는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루돌프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온다.)

재판장: 증인,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서기가 선서서를 루돌프에게 가져다 준다.)

루돌프: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들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손을 내린다.)

재판장: 증인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심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증인 심문을 하세요.

검사: 증인, 증인 이름과 거주지를 밝혀주십시오.

루돌프: 제 이름은 루돌프이고, 순록입니다. 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핀란드의 삼림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사: 시베리아와 핀란드 삼림지대에서 살고 있는 증인이 어쩌다가 산타와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루돌프: 네, 사실 저는 코가 빨개서 순록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타클로스께서 오셔서 “네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줄 수 있겠니?”라고 하여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산타클로스와 산타 할머니 등의 썰매를 끌고 있습니다.

검사: 산타클로스가 일을 제안할 때, 이건 자원봉사이고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었나요?

루돌프: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검사: 증인은 지난 193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 연봉이나 월급, 주급, 일당, 야간 근무 수당 등 말입니다.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루돌프: 산타클로스께서 선물을 준 적은 있는데,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검사: 그럼 2019년 12월 이후 피고인인 산타 할머니가 임금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까?

루돌프: 아뇨, 산타 할머니께도 임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검사: (재판장을 향해 서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은 지난 1939년부터 단 한 번도 산타클로스에게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부터 피고인에게서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은 야간에, 그것도 한겨울 추위가 있는 12월 24일과 25일 밤에 배달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채 무급노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한 1939년에 무임금이라는 사실, 자원봉사라는 사실을 한 번도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타클로스과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열정페이, 무급노동, 임금체불을 단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검찰은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자리에 가서 앉는다.)

판사: (변호인을 바라보며) 다음으로 변호인, 반대 증인심문을 해주십시오.

변호사: (자리에서 일어나 루돌프 앞에 서서) 증인, 증인은 1939년부터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산타클로스나 피고인에게 임금을 요구한 적은 있었나요?

루돌프: 아니, 저는 임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 네, 증인은 임금을 요구한 적이 없군요. 그럼 증인은 임금 없이 일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루돌프: 네, 그렇습니다. 산타께서 이 일은 임금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임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증인, 그렇다면 산타클로스나 피고인인 산타 할머니는 보수가 있나요?

루돌프: 제가 알기로는 산타도 임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타클로스와 산타할머니는 자기 돈을 써서 선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맞습니다. 산타클로스 측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전혀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 대표인 산타클로스는 물론, 피고인인 산타할머니도 모두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증인, 이 상황에서 증인만 임금을 받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지 않았으니 임금체불이라는 주장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돌프: 글쎄요. 저는 임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임금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제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임금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와 산타할머니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몸을 판사를 향해 서서)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루돌프 씨는 산타클로스와 산타 할머니가 임금체불을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타클로스 씨가 자원봉사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 900여년간의 활동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라는 사실을 루돌프 씨도 이해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자리에 앉는다.)

판사: (검사를 바라 보며) 검찰 측, 추가 심문을 원하십니까?

검사: 네, 재판장님. (자리에서 일어선다. 증인석 앞으로 향한다.)

검사: 증인, 일을 시키면 보수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루돌프: 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을 했으면 보수를 받아야죠.

검사: 그렇다면 보수를 달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보수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루돌프: 물론 부당합니다. 보수를 주기로 한 날에 딱딱 줘야죠.

검사: 그렇다면 증인이 산타클로스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를 안 해도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돌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검사: 증인은 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증인 이외의 다른 순록들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루돌프: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안은 그 순록들이 판단할 문제 아닐까요?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검사: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은 일을 시키는 사장과 순록 한 마리, 한 마리의 힘은 누가 더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루돌프: 당연히 사장이 훨씬 힘이 세겠지요?

검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힘이 일방적으로 센 경우에는 당연히 법으로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회사 내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가 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자리에 앉는다.)

판사: 양측의 심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검찰 측의 최후진술을 듣겠습니다.

검사: (판사와 배심원을 천천히 돌아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산타 할머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인 존경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임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실 위해 포장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은 피고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크리스마스 캐롤송 '울면 안 돼'로 허위 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였기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루돌프와 다수의 요정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주거지는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주거침입을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하는 야간 주거침입은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울면 안 돼'라는 노래 가사로 울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피고인은 그 노래 가사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사실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동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루돌프와 요정은 아주 오랫동안 산타의 일을 도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급으로 산타의 일을 지원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4시간 일을 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데, 피고인은 루돌프와 요정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루돌프에게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한 선물을 배달하는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것은 동물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측은 노동을 경시하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자리에 앉는다)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판사: (변호사를 바라보며) 변호인, 최후변론을 해주십시오.

변호사: (판사와 배심원을 돌아보며)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 해도 1인당 국민총생산은 3만 달러를 넘고,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집에도 에어컨과 식기세척기, 빨래건조기를 사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살고 화목한 가족만 존재할까요?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생계비를 쓰는 빈곤층이 많고,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1년 365일 내내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에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산타할머니와 산타들이 아닐까요? 900여년 동안 이어진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을 했다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에 산타 이야기가 나온다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선물을 포장하고 배달했다고 피고인 산타할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저는 우리 사회가 피고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을 단죄하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모두를 위한 시즌으로 이어지길 원하신다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는다)

판사: (산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겠습니다. 피고인, 최후진술 준비되셨으면 해주십시오.

산타 할머니: (재판장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19년부터 산타의 일원이 되어 어린이와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린이에게 행복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선물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콩닥거렸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나 양말에 들어있는 선물을 확인하면서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든 어느 시점에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산타 시험을 통과하여 지금 이렇게 여성 산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처럼 재판정에 설 것을 예상하고 산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양말로 동의를 한 집에만 선물을 전달했고, '울면 안 돼'라는 캐롤송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으며, 루돌프 씨와 요정은 제 동료로서 함께 자원봉사를 했음을 밝힙니다. 저는 산타 일을 하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선물이 부족할 때에는 제 돈으로 선물을 더 마련하여 어린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추운 12월 겨울밤에 밤새도록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와 순록, 요정은 참 많습니다.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우리는 세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 결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디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사: (배심원 등을 바라보며) 그럼 평결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은 평결을 위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원은 모여서 피고인, 산타 할머니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의논한다. 유죄, 무죄가 결정이 되면 판사에게 손짓을 한다.

판사: (배심원을 바라보며) 배심원 여러분이 입장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배심원 대표는 준비가 되셨으면 배심원의 결정을 발표해 주십시오.

배심원 대표: (자리에서 일어나) 평결하겠습니다. 배심원은 피고인의 불법 주거침입에 대해 ○대 ○으로 (유죄/ 무죄)를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에 대해서는 ○대 ○으로 (유죄/ 무죄)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대 ○으로 (유죄/ 무죄)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에 앉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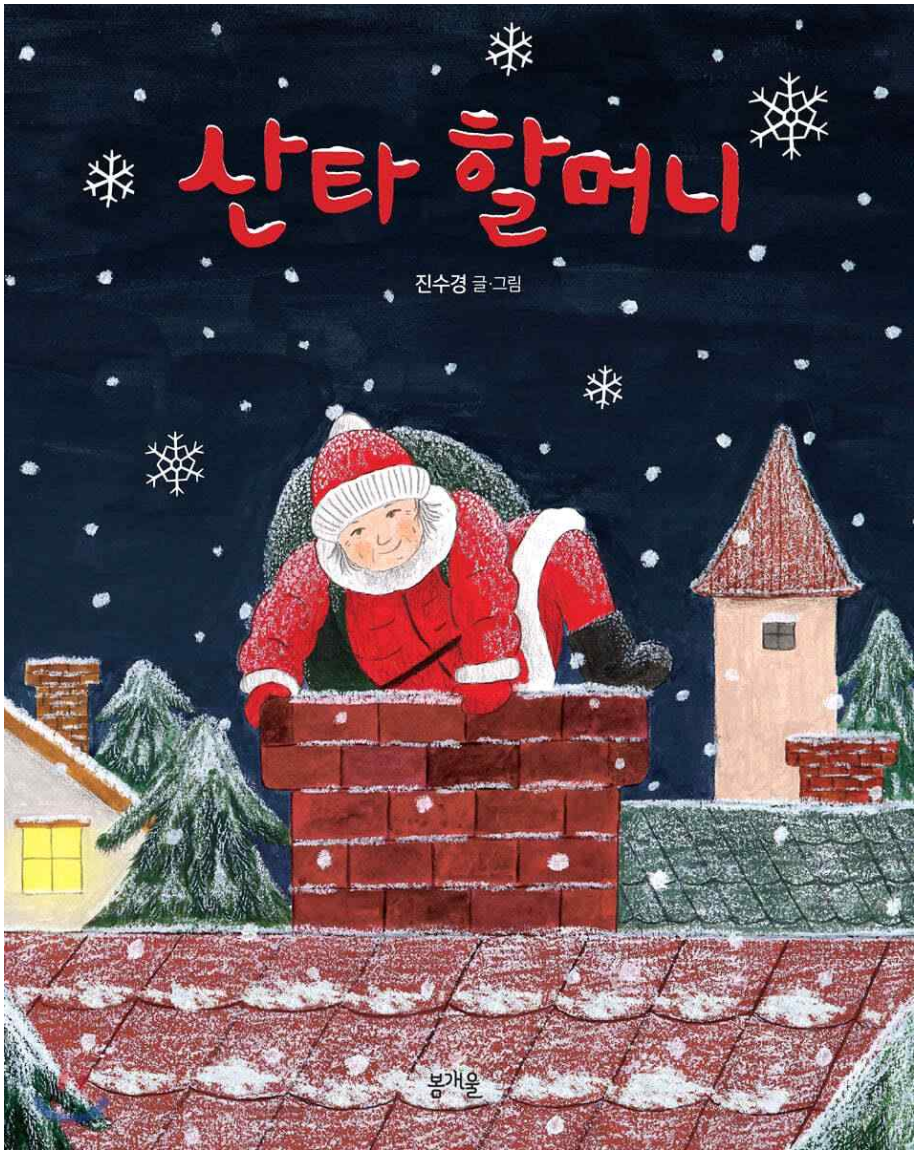
판사: 배심원의 평결을 잘 들어봤습니다. 재판 과정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토론하여 결정한 배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문, 피고인 산타 할머니에게 (유죄/ 무죄)를 선고한다.

그럼 이것으로 사건번호 2023가단579, 피고인 산타 할머니에 대한 모의법정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판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봉을 세 번 두드린다.) <끝>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

□ 관련 그림책

진수경 글·그림. 《산타 할머니》(2019). 봄개울.



이 모의법정토론 대본은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봉